'자두살구 맛 나는 플럼코트가 열렸어요' 22일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재배지에서 한 직원이 연구용으로 재배한 '플럼코트'를 수확하고 있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교배해 만든 과일로,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항산화 물질 함량이 풍부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수산식품 두바이 진출

전북바이오진흥원, 미개척 시장 두바이 현지서 전북 농식품 홍보 행사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영세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개척 시장인 중동의 두바이 현지에서 '전라북도 농식품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판촉행사에는 도내 12개 기업, 20여개 품목, 약 7만불 가량이 선적됐다. 선적 품목은 건강즙, 유자차, 버섯 모둠세트, 추어탕, 누룽지, 마시는죽, 떠먹는고구마, 고춧가루, 쌀, 조미김, 미숫가루 등이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두바이 1004 고메(Gourmet)는 두바이 내 가장 큰 한인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국 식품 전반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라북도가 두바이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좋은 테스트 베드(Test bed)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 건강을 해치는 음료에 죄악세(Sin Tax)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전라북도 건강식품 중심의 홍보 판촉 행사가 중동 시장을 개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두바이 홍보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전라북도와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영세기업 수출을 주선해 줘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우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해외 수출 판로 개척 기회가 적은 수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홍보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말했으며,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 영세 식품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탄소복합재 전문인력 양성 '최우수'

탄소산업진흥원, 고용부 성과평가서 'A' 등급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복합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0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전략분야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진흥원은 훈련과정 설계·운영과 전담인력 전문성, 훈련성과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진흥원은 지난해 660여개의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체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720여명에게 탄소복합재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93.6%가 '교육이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했다'고 응답했고,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강생 역시 93.2%가 '교육효과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역량강화, 현장 활용을 통한 소속기업 성과 향상 등 교육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의 이 같은 평가는 그간 과감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조직역량 개발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진흥원은 2012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선정된 이후 탄소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탄소섬유 중합·방사 및 산화기를 비롯한 28종의 장비와 15종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실습을 위해 AR/VR 장비를 갖췄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그간 진행된 탄소복합재 분야 교육에 참여한 총 인력은 6000여명에 달한다.

나아가 진흥원은 2021년 10월까지 수소연료저장용기 실습을 위한 5축의 필라멘팅와인딩기를 도입해 교육수요의 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은 "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로써 탄소복합재 중심의 소부장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 군산지사, 학대피해아동 쉼터 '빛드림 4U 지원' 진행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정관영, 노조위원장 이수길)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돼 현장에서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군산시 최초로 설치돼 운영되는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을 위한 '빛드림 4U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빛드림 4U 지원사업'은 한전 군산지사가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위해 한전 군산지사는 쉼터에 입소하는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중 학습에 사용될 컴퓨터 구입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소상공인 백년가게 서포터즈 발대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대학생과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백년가게 서포터즈' 발대식을 22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윤종욱 청장과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 5명 전원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활동을 다짐했으며, 발대식 후 서포터즈 활동계획에 대한 간담회와 SNS활용 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전북중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소상공인 백년가게 서포터즈' 모집공고를 내고 SNS 사용이 활발한 전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5명의 대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6월부터 12월까지 전북지역 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인터뷰와 체험을 통해 대표메뉴, 특산물, 경영스토리 등의 홍보콘텐츠를 작성하고, 네이버 블로그 등 각 서포터즈가 운영하고 있는 SNS채널과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도내 중기·소상공 지원 앞장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에 출연금 9억92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22일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에 임의출연금 9억9,200만원을 출연했다.

이번에 전달한 출연금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금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금년도 출연금 24억9,200만원을 포함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1억원을 출연해왔으며, 유동성공급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농협은행은 지역밀착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금출연 및 금융지원으로 전북지역 경제가 회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씨없는 수박' 수출 확대를 위한 '농촌진흥청-전북도농업기술원 수출협력 협의회'가 지난 21일 전북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에서 열렸다.

'씨없는 수박' 시장 개척 '한마음'

농진청-전북농기원, 수출협력 협의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씨없는 수박' 수출 확대를 위한 '농촌진흥청-전북도농업기술원 수출협력 협의회'를 지난 21일 전북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촌진흥청과 전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수박공선출하회 등 농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농촌진흥청은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과 종합 컨설팅(상담) 추진성과를 공유했으며,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씨없는 수박 수출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씨없는 수박 연구·보급에 따른 어려움 해소 방안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수박 재배 현장을 방문했다.

씨없는 수박은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국가주도 집중육성 18개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로, 전북에서만 한해 5톤가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 수박이 생산되지 않는 10~12월에 씨없는 수박이 수출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5~8월에 씨없는 수박이 생산되므로 일본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화분(꽃가루) 저장, 과일 크기 향상, 숙기(익은 때) 연장 기술 개발 등 고품질 수박 생산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씨없는 수박 수출국을 넓히기 위해 일본 이외 다른 국가로도 시범 수출을 추진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저장유통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품질 좋은 수박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수출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출 상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장은 "2020년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실적이 7.7% 증가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씨없는 수박 등 지역특화작목 수출확대를 위해 현장중심 기술지원과 연구개발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도내 농산품 온라인 판매 적극 지원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 전주원예농협과 협약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이사장 두완정)이 도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선다.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은 22일 전주원예농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우철)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지역 농산품의 온라인 판매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은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은 전북지역 농산품의 농협몰 입점과 우체국쇼핑몰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마켓 입점을 지원하고 실시간 라이브판매를 통한 마케팅과 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이 모든 유통 과정에 필요한 상세페이지에서부터 홍보영상을 지원하고 판매 후 고객관리까지 지원해, 트랜드에 맞는 상품개발과 디자인 개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완정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중소상공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이 앞장설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간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모범적인 사업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전개공, 도시재생뉴딜 사업 참여 '잰걸음'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재생을 정책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 및 일반근린형 등 5가지 유형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3가지의 공기업참여 방식이 있다.

이에 개발공사는 도시재생뉴딜 참여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내 도시재생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모예정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개발공사의 참여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도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한 사업에 대한 참여방식 등을 협의해 2021년 상반기에 그 성과가 가시화돼 2021년 하반기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와 함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업체 현장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2일 군산시에 소재한 혁신시제품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엔알비(대표 강건우)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1차 교육부에서 제안한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엔알비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 가능한 이동형 그린스마트스쿨(브릿지스쿨)'은 기존의 컨테이너 교사의 단점을 보완해 건축물의 성능, 품질, 법적기준을 갖춘 이동 및 확장이 가능한 이동형 건물로 학교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중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제도 강화 시행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2021년 7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 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규정 안내, 민원 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와 함께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요청되는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높여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관계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행정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